

마다가스카르 최성수-이경희 선교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
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46:1~2



선교사님들의 순교



지난 2월 21일 이곳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너무나 슬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분의 한인 선교사님들께서 7명의 강도들에게 습격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도둑질이나 강도 사건은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선교사님들의 목숨까지 잃게 한 사건은 처음이기에 그저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현지인(말라가시)들이 다툼이나 싸움을 싫어하는 순하디 순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번 사건은 현지인들에 대한 저희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을 믿을 수 있을까? 저 웃음 뒤에 다른 속셈이 있지 않을까?

두 분 선교사님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아니라 긍휼함을 주시기를..

싸이클론: JUDE

지난 3월 15~16일 마다가스카르를 휩쓸고 지나간 싸이클론(JUDE)의 영향으로 남부 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집, 교회,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림책 심리코칭

아미 음악학교



Tana City Faralaza 교회 중/고등부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아미 음악학교 교사들과 저희들이 출석하는 현지 교회(Tana City Faralaza)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경희 선교사가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그림책 심리코칭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이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한 회복



지난해까지 저희 부부가 사역했던 Epp Maibahoaka(마이바호카 공립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 Rina(리나)와 함께 매주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리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자리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제목

1. 매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교사 부부가 되기를.
2. 선교사의 삶이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가득하길.
3. 우리가 만나는 현지인들에게 주님 사랑이 아름답게 전해지도록.
4. 이 땅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의 삶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길.

(연락처)

최성수 카톡 ID : **drewschoi2**

이경희 카톡 ID : **tsaramada**